



5면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총력전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윤 6월 19일) 제37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AI·로봇이 가축 돌본다 동물복지 미래목장 구축

전북도, 축산업 디지털 전환·동물복지 수준 향상 위해
기존 한우 축사 리모델링해 ICT 기반 스마트 목장 전환
2034년까지 추진... 사육시설 넘어 낙농인재 양성 장소로

전북특별자치도가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 미래목장' 구축에 나선다.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11일, 총면적 3,368㎡ 규모의 기존 한우 축사를 리모델링해 저지종 젖소를 키우는 ICT 기반 스마트 목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이 가운데 15억원은 도비, 나머지는 ICT 장비·인건비·생물자산 등 기타 예산으로 충당된다.

목장에는 젖소의 행동 자유와 휴식을 보장하는 프리스틀 형태의 우사, 착유실, 고액분리기, 실습교육장, 운동장 등이 들어서며, AI·로봇 기반 ICT 장비 7종 10대가 젖소 성장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026년에는 농후사료 급여기, 송아지 자동유기, TMR 급여기 등 기본 장비, 2028년에는 로봇착유기, 분변정리기, 풀사료 정리로봇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저지종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진행해 2030년까지 50두의 착유우 집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4월 첫 저지 송아지가 탄생하고, 2028년 6월에는 '동물

복지농장'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미래목장은 단순한 사육시설을 넘어 연간 180명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낙농 전문 경영실습장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풀무원, 라트바이오 등과의 협력 연구도 병행된다. 연구소는 △ICT 자동화 시스템 효율성 검증 △기후적응형 유익 미생물 발굴 △저지 원유의 의약품 소재화 연구 등을 통해 미래 낙농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로서 생산·교육·연구가 결합된 융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 지역사회,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 최강욱·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조국 부부·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전 법무부장관>

<전 국회의원>

정부, 임시 국무회의 통해 의결

정치인 27명·경제인 16명·노동계 인사 184명 등 포함

일반 형사범·윤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들도 혜택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을 의결하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총 83만16,687명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결정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폭넓게 포함하며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범위한 일반 형사범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만 83만명에 육박하며, 생계형 범죄 등 소액 벌금 미납자를 포함해 총 1,920명의 일반 형사범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국민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정치인 및 주

요 공직자들의 사면이다. 총 27명의 정치인과 공직자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자녀 임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는 이번 사면으로 수형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중앙대 교수 역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되고, 윤건영 의원은 복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고 심학봉 전 의원이 복권 대상

에 포함돼 여야 간의 '사면 거래'가 이번에도 재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사를 요청했던 명단에 이들 사면 복권 결정자의 이름이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면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인 16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이뤄졌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중앙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노동계 인사들에게도 적용됐다.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인사, 농민, 노점상 등 총 18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결정이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한층 더 'UP'

도, IOC 레츠무브 연계 대국민 참여 SNS 2차 이벤트

31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움직이는 응원'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까지 총 3회 운영중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누구나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필수 해시태그(#LETS 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를 달면 참여할 수 있다.

스트레칭,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

와 함께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레츠무브'는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움직이며 올림픽 가치를 되새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는 'Pick Your +1 and Move Together(함께 움직이자)'를 슬로건으로 친구, 가족, 연인과 짝을 지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IOC 권고에 따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이벤트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캠페인은 중간 단계 행사로 국민의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추첨을 통해 회차별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도 증정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마지막 3차 캠페인이 이어지며, 도는 이번 3차 캠페인까지 총 3회에 걸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전국적인 유치 붐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희숙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이라며, "건강한 움직임과 함께 올림픽 유치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4th 전주세계소리축제

2025. 8. 13. Wed — 2025. 8. 17. Sun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SORI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협찬

전북은행

전북농협